

부평구, 구민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본격 추진

작성자	임선미(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년 9월 1일(수)
조회수	11		
전화번호	032-509-6417		

첨부파일 부평구_구민이_함께하는_문화도시_부평_본격_추진_문화도시부평-국영문조합형.png [13KByte]



부평구_구민이_함께하는_문화도시_부평_본격_추진_문화도시부평-국영문조합형.png (13K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구민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본격 추진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한 '문화도시 부평'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도시 부평'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 ▲부평대중음악자원 활용 및 지역뮤지션·기획자 지원사업

▲D-Lab 및 비주류 문화기반 확산사업 ▲문화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으로 구민과 함께 문화도시 부평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는 먼저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 등 시민참여 사업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문화두레시민회’를 모집해 총 9개의 ‘1-4천리’ 사업 실행 분과를 구성,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또 스스로 상상하는 부평에 관한 소소한 실험인 ‘꽤 쓸모 있는 도시 실험’ 공모를 통해 선정된 9팀이 9월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부평의 BI를 주제로 한 시민그림공모전도 오는 15일부터 진행한다.

부평의 대중음악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뮤지션 및 기획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8월 16일부터 공모를 시작한 ‘뮤즈컴(MUSCOM: Music·Stage·Support·Command)’은 부평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및 기획자들에게 창작, 제작의 기회와 음악활동공간을 제공해 신규 뮤지션들의 역량을 높이고 공연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뮤즈컴에 참여한 뮤지션들에게는 애스컴(ASCOM: Army Service Command)시티 시대 음악을 오마주한 리메이크 앨범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이 외에도 오는 10월 중 ‘뮤직플로우페스티벌(MFF: Music Flow Festival)’이라는 대중음악 무대를 구축해 부평의 대중음악자원을 활용한 축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D-Lab(Digital music-Lab)’과 비주류문화 확산사업으로 디지털뮤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음악교육과 창·제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아트워크(Artwork)창·제작지원 사업 공모와 서브컬처·뉴미디어·뉴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스트리트컬처·서브컬처·디제잉·언더그라운드 뮤직 등의 비주류 문화자원을 연계한 유기적 문화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많은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오는 10월 부평-부천이 협업하는 ‘부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화1호선’이라는 부평-부천-영등포의 경인권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별 문화자원을 공유한 콘텐츠 제작 및 통합포럼도 진행한다.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인 ‘문화두레 시민회’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가능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도시부평’ 홈페이지(<http://www.bpcf.or.kr/cc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